

호남행 文 “광주정신 받들겠다” 민심 달래기

취임 후 첫 지방행보... “문화전당특별법 처리 최우선”

김희중 대주교 등 만나... 팽목항 방문 유가족들 격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표 취임 후 첫 지방행보로 지난 14일 광주·전남을 찾았다.

문 대표가 첫 지방 행선지를 호남으로 선택한 것은 정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자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박지원 의원을 지지한 당원들을 끌어안는 등 ‘호남 민심달래기’와 함께 계파 갈등의 후유증을 조기에 없애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야권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반쪽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최대한 계파를 통합하는 행보로 당내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를 비롯해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50여 명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

록에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적고 호남 민심에 적극적인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문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드는 데 광주에 와서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왔다”며 “통합의 정신인 광주 정신을 받들어 당을 일으켜세우겠다”고 광주 시민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문 대표는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아특법)과 관련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이 늦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개최되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드 대회의 원활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묘역 참배 중에는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자고 건의하겠다”고도 말했다.

이후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원로들과 오전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들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셨을 것”이라며 “이제 그런 것을 다 씻어내고 다시 하나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이날 비공식 일정으로 김희중 대주교와 천주교 신자들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일정을 마친 문 대표는 오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다.

지난달 19일 안산에서 출발한 ‘세월호 인양 촉구 및 진상 규명을 위한 가족 도보행진단’이 도착하는 시각에 맞춰 팽목항에 들른 문 대표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먼저 둘러 헌화·분향했다. 유가족들과

도보행진단에 둘러싸여 분향소를 나선 문 대표는 잠시 눈시울이 붉히기도 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과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표는 ‘정치가 해결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유가족을 걷게 해 송구하다’고 말했다”며 “‘실종자를 가족에 돌려주려면 세월호는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진상규명 착수도 못한 상황에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기존의 세월호 관련 대책위를 새로 재구성해 세월호 특별조사위 문제나 인양문제, 가족 지원 및 배·보상 문제 등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진도군청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를 만난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진도군민들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직인선 무늬만 탕평”

박지원, 문재인에 ‘쓴소리’

문재인 대표의 당직 인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표 측에서는 이번 당직 인선이 친노계 인사들을 배제한 ‘탕평’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비노 진영에서는 ‘무늬만 탕평’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당직에 임명된 의원들을 친노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 전대 당시 물 밑에서 문 대표를 도운 인사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들만의 잔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정한 탕평인사는 이번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문 대표에 맞섰던 비노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강기정 의원과 사무총장을 맡은 양승조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 등은 지난 당 대표 경선에서 문 대표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록 의원이 대변인에 임명됐으나 이에 대해 별다른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지원 의원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의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비롯,

일련의 당직 인사에 대해 “문 대표가 (당선 후)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호남을 적극 배려하겠다’, ‘인사 등 모든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다 끝내놓고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야당에서 이런 일은 없었다”며 “약속이 지켜져야 신뢰 관계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주류 및 비노 진영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갖 출법한 지도부에 드러내놓고 ‘쓴소리’를 하려면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지원, 김한길, 안철수, 박영선 의원 등 비주류의 핵심 세력은 최대한 당내 현안과 거리를 둔 채 각자의 활로를 암중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비노계 의원 측 관계자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까지 비주류는 정치적 암중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4월 보궐선거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당내 권력구도의 재편 등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8 전대 이후 처음으로 지난 14일 광주를 방문해 당직자,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과 함께 복구 유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정의당·국민모임 “4월 보선 공동 대응”

양측 지도부간 상시 협의키로

“천정배 공천, 사실과 다르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신당추진위가 오는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비롯한

양측은 15일 의원회관에서 지도부 회동을 하고 ‘진보정치 통합’ 추진과 함께 4월 보궐선거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과 국민모임 오민애 대변인이 밝혔다. 양측은 이를 위해 지도부간 상시 협의 통로도 만들기로 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회동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대응’이 후보 단일화 추진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연대를 할지는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시인했다.

이에 따라 최근 새 지도부를 갖춘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보연이라는 협력을 꾀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의당이나 국민모임은 최근 새정치연합의 대체 세력을 자임하며 날을 세우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모임 측이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 출마와 국민모임 참여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했다. 국민모임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천 전 의원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신당의 광주 서을 후보로 천 전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광주정신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공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민대통령... 정치인으로 존경”

김무성 대표, 봉하마을을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권양숙 여사 예방 불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김 대표의 이날 참배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 현충원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직후라 시의미가 쏠렸다.

여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것은 2011년 황우여 대표 권한대행 이후 두 번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도착해 헌화·분향한 데 이어 수행한 인사들과 함께 묵념을 올렸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맛있는 인생이셨습니다”라고 적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망국병인 지역주의, 권위주의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에서 추모의 시간을 가진 뒤 ‘추모의 집’에 전시된 사진과 노 전 대통령 용성이 나오는 영상물을 둘러보며 30여분간 머물렀다.

예초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예방하려 했으나, 권 여사 측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표해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신 권 여사는 새정치연합 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과 이 지역구의 민홍철 의원에 영접을 부탁했고, 조호연 비서실장을 통해 “와 주셔서 감사하다. 일정상 직접 못 뵈게 돼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김 대표를 잘 모시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학부

▶ 정시 추가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등록요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1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악학과	4
	실용음악학과	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없음),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② 원서접수 : 2015. 2. 16(월) ~ 22(일)
 ③ 전형일 : 2015. 2. 23(월)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① 원서접수 : 2015. 2. 9(월) ~ 23(월)
 ②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석사	신학과(Th.M.)	○
		신학연구학과(M.A.T.)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① 원서접수 : 2015. 2. 9(월) ~ 23(월)
 ②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 605-1114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당사의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3월 06일 (금) 16:00
- 장소 :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중동, 해운빌딩 5층) 회의실
- 보고사항
가. 영업보고 나. 감사보고
- 회의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27기 영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결정의 건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치 못하고 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이 참석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6일
광양선박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상 용 (직인생략)